

‘월간 집’서 잡지사 에디터 연기 배우 정소민

“집은 온전히 나답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어느 순간 정말 ‘월간 집’ 잡지사 에디터로 출근하듯이 세트장으로 가는 걸 발견했어요. 늘 같은 곳에 제 자리가 있고, 좋은 동료들이 있어 처음 경험하는 소속감이었죠.” JTBC 수목드라마 ‘월간 집’에서 10년 차 잡지사 에디터 나영원을 연기한 배우 정소민(본명 김윤지·32)을 최근 서면으로 만났다. 장르극이 점령한 최근 드라마 시장 속에서 ‘착한 드라마’로 호평받았다고 하자 “어려모로 힘

그는 그러면서 최근에는 식물을 활용하는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늘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월간 집’은 특히 청약, 재개발 아파트, 전·월세 문제, 율로족 등 현실 밀착형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정소민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우리 집에서 방송을 같이 본 날이 있었는데 극 중 영원이 ‘저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이 하나 없어서’라는 대사를 할 때, 친구가 ‘와... 나 맨날 저 생각하는데’라면서 엄청나게 공감하더라. 곁에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정소민은 로맨스 호흡을 맞춘 배우 김지석, 정건주에 대해서도 많이 의지

했었다며 팀워크를 자랑했다. “지석 오빠는 이전의 호흡을 한 번 맞췄던 적이 있어서 현장에서 든든하고 의지가 많이 됐고요. 건주 배우는 늘 밝은 성격인데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저씨 개그’를 많이 해서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 편안함이 신경(정건주 분)의 매력이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이별 에피소드 후 연자들이 감정 대립 없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에 영원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힘을 잃었다는 지적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소민은 “이 에피소드를 촬영할 때 차인 게

억울해서 ‘아니, 내가 대표님이 좋는데 왜 날 버려’ 하면서 농담 삼아 장난도 쳤다”며 “근데 그건 영원의 시각이고, 사랑이 처음이고 서툰 자성(김지석)이라는 캐릭터를 고려해봤을 때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월간 집’은 매회 마무리에서 내레이션과 함께 집으로 인해 다양한 고충을 겪는 각 캐릭터의 모습이 화면에 잡혀 있었다. 모든 대사가 영원의 상황을 대변했고, 진솔한 마음이 녹아 있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2010년 SBS 드라마 ‘나쁜 남자’로 데뷔한 정소민은 최근 ‘이별 생은 처음이라’, ‘영혼수선공’, 그리고 ‘월간 집’까지 ‘힐링 드라마’에 종종 출연하고 있다. 그는 “워낙 힐링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그런 테마의 작품에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사실 장르로만 봤을 때는 독특한 소재나 판타지, 액션 같은 장르를 늘 기다린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차기작은 천기를 다루는 젊은 술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tvN ‘환혼’이다. 정소민도 “상당히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 데뷔 10년을 훌쩍 넘긴 정소민은 마지막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직업의 큰 틀은 여전히 같지만, 앞으로는 저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약·재개발 아파트·전월세 문제·율로족 등 현실 밀착형 에피소드 소개 젊은 세대 공감 판타지·액션 장르 끌려... 차기작 ‘환혼’ 기대

든 시기에 아껴주신 시청자들 덕분에 나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인사했다. ‘집’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다. 정소민은 집을 소재로 한 이번 작품에 참여하면서 원래 집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생각들과 가치관이 더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집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답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숨차게 달려온 하루 끝에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보기 좋고 편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요.”

했다며 팀워크를 자랑했다. “지석 오빠는 이전의 호흡을 한 번 맞췄던 적이 있어서 현장에서 든든하고 의지가 많이 됐고요. 건주 배우는 늘 밝은 성격인데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저씨 개그’를 많이 해서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 편안함이 신경(정건주 분)의 매력이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이별 에피소드 후 연자들이 감정 대립 없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에 영원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힘을 잃었다는 지적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소민은 “이 에피소드를 촬영할 때 차인 게



월간 집 8월 16일 [수] 밤 9시 첫 방송

윤계상 “저 결혼합니다”

5살 연하 사업가와 혼인신고

배우 윤계상(42·사진)이 결혼한다. 윤계상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는 11일 “윤계상이 5살 연하의 사업가인 예비 신부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다”며 “최근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까운 시일 안에 결혼식을 진행하기 어려워 혼인신고를 먼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계상도 이후 자신의 팬카페에 “저 결혼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아내가 될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날 지켜주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기도 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 함께 하고 싶다는 확신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될 사람은 비연예인이기에 갑작스럽게 과도한 관심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며 살아갈 우리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귀은 일들은 별개로 인정받고 존중



연제나 응원해”라고 썼고, 김태우도 “진심으로 축하해 형. 웰컴 투 유부(남) 월드. 행복하고 예쁜 가족 만들자”고 적었다. 윤계상은 1999년 그룹 god로 데뷔했으며 이후 연기자로 전향해 영화 ‘범죄도시’와 ‘말모이’, 드라마 ‘굿 와이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하반기 공개될 드라마 ‘크라임 퍼즐’을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지탱했던 옥바라지

KBS 광복절 특집 15일 ‘옥바라지, 그녀들의 독립운동’ 방영

일제강점기 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을 지탱했던 건 ‘옥바라지’라는 또 다른 이름의 독립운동이었다. KBS 1TV는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옥바라지, 그녀들의 독립운동’(사진)을 통해 서대문형무소 건너편에 위치했던 ‘옥바라지 골목’을 조명한다. 방송에서는 지금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옥바라지 골목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감옥 안과 밖을 필사적으로 이어주던 이들의 독립운동이 그려질 예정이다. KBS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의 식사량은 형량과 노역 강도에 따라 9등급으로 세분됐다. 독립운동으로 수감된 사상범의 경우 5등급 이하에 해당해 한 끼에 270g 혹은 그보다 적은 음식이 제공됐다. 이는 하루 764kcal 이하 열량의 식사로, 성인의 일일 권장 칼로리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식사와 의복을 제공하지 않아 가족들의 ‘옥바라지’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서대문형무소 건너편에는 ‘감옥밥 파는 집’, ‘형무소 피고인 차입소’ 등의 간판이 즐비한 옥바라지 골목이 생겨났다. 독립투사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 속에서 가려져 왔던 또 다른 독립운동을 담은 ‘옥바라지, 그녀들의 독립운동’은 오는 15일 오후 7시 55분 방송된다. /연합뉴스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주상욱, 타이틀롤 낙점

배우 주상욱이 7년 만에 부활하는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타이틀롤로 낙점됐다.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주상욱은 ‘태종 이방원’에서 태종 이방원을 연기하며, 태조 이성계는 김영철이 맡는다. KBS 대하사극은 2016년 ‘장영실’ 이후 맥이 끊겼으나, 최근 양승동 KBS 사장이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태종 이방원’은 총 36회로 제작되며 연말 방송 예정이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